

# 50대 40명 최다…여성은 8명

## ■ 광주·전남 후보자 분석

18대 총선후보 등록 마감결과 광주·전남에서는 20개 선거구에 모두 93명이 접수, 평균 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등록을 마친 결과 지역 입후보자가 가운데 상당수가 병역을 마치지 않았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전파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 성별·연령별 현황

이번 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후보들 가운데 여성은 전체 93명의 후보 가운데 8.6%인 8명에 그쳤다. 연령대 별로는 50세 이상 59세 이하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갑에 출마한 진보신당의 김남희 후보가 26세로 나이가 가장 적었으며, 광양 김광영 후보가 70세로 가장 많았다.

### ◇ 병역 현황

광주지역 후보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광주 7명, 전남 7명 등 모두 14명으로 집계됐다.

동구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고령으로 소집면제됐다. 남구의 지병문 후보는 질병으로, 강운태 후보는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됐다. 북구 갑의 강기정 후보는 민주화

## 재산 김효석 78억·조영택 42억 1·2위

## 김광영 70세 최고령 김남희 26세 최연소

운동으로 구속돼 형을 살면서 군대에 가지 못했으며, 한화갑 후보도 소집이 면제됐다.

전남에서는 무안·신안의 황호순 후보가 장기대기로, 담양·곡성·구례의 김효석 후보는 폐결핵이 원인이 된 입영연기로 소집을 면제받았다.

또 나주·화순의 김창호 후보, 광양의 이육재 후보, 여수읍의 김형운 후보도 소집이 면제됐다.

### ◇ 전과 현황

광주 서구을의 김영진 후보는 지난 82년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로 기록됐다. 오병윤 후보 역시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복권됐다. 북구갑의 강기정 후보는 대학시설 집사법, 국보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다. 한화갑 후보는 지난 78년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년을, 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 복권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의 박지원 후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

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일 특별복권됐으며, 순천에선 김기룡 후보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특별복권됐다. 장흥·강진·영암에서는 채경근 후보가 현주건조물방화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무안·신안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특정경제법(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복권됐다. 같은 선거구의 이윤석 후보는 특기법(뇌물)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 재산신고 현황

광주전남에선 담양·곡성·구례의 김효석 후보가 78억2천67만2천 원을 신고,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자신이 중앙대 경영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배우자가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저축한 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혁명비 중이 큰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 ■ 정당별 등록 현황

구분	계	통합민주당	한나리당	자유선진당	민주통당	청주한국당	친박연대	구국칠시립연대	국민실향안보당	기독당	진중연합당	진보신당	통일당	평화기념당	무소속
광주	38	8	8	1	5	0	0	0	0	0	0	1	0	8	7
전남	55	12	12	1	5	0	0	0	0	0	0	1	0	12	12
합계	93	20	20	2	10	0	0	0	0	0	0	2	0	20	19

### ■ 성별·연령별 등록 현황

구분	남	여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광주	34	4	1	6	9	16	6	0
전남	51	4	0	2	18	24	10	1
합계	85	8	1	8	27	40	16	1

### ■ 병역신고 현황

구분	후보자 수	군필	군미필	해당없음(비대상)
광주	38	27	7	4
전남	55	44	7	4
합계	93	71	14	8

### ■ 재산신고액별 현황

구분	후보자 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광주	38	3	4	11	13	6	1	0
전남	55	4	5	18	8	15	4	1
합계	93	7	9	29	21	21	5	1

## 18대 총선 달라지는 것들

이번 총선에서 후보 측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18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과 주의할 점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은 17대 총선과 달리 유권자들이 100만 원 이상의 음식

자수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선거범죄 신고자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또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고, 후보 측이 불법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의 5배를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100만 원 이상 받은 유권자 형사처벌

## 선거법 위반 사무장 등 자수 땐 감형

물이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종전까지는 유권자들이 음식물·물품 등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불법기부를 받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기부받은 음식물이나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특히 ▲ 조직적인 돈선거 ▲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 향우회·동창회·신악회 등 사조직 선거운동 ▲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4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20대 선거구를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 특별조사팀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특별 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주후보 등록 과정 전과 드러나 자격 논란

## 힙합 가수 김원종씨 “정치 바꾸겠다” 등록

### ■ 후보 등록 이모저모

○…전북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현숙(70·무소속) 후보의 납세액을 잘못 계산한 채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발표됐다.

26일 강현숙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후보 등록을 한 강 후보의 납세액은 4천267만원이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3천840만원으로 기재됐다.

강 후보 측은 실제 납세액보다 400만원 가량이 적게 기재된 채로 이날 오전까지 계시가 계속되자 선관위에 정정을 요청했다.

○…전주 덕진 선거구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김세웅(54) 후보의 폭력 전과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

26일 전주 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후보가 제출한 등록서류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지난 76년 부산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한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된다.

○…“디지”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힙합 가수 김원종(26)씨가 26일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했다.

전날까지 추천인 명부 등 서류 준비를 해온 김씨는 “사람들을 만나 추천인 명부를 받으며 기성 정치에 대해 불신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변화를 주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8대 총선 입후보자 중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등록자의 8.7%인 82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6일 오후 3시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932명이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납부 실적이 전무한 후보는 총 33명으로 집계.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4명, 친박연대 1명, 진보신당 1명, 평화통일당 24명, 국민실향안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회창 후보 ‘마이너스 120억’ 재산 꼴찌

### “대선 빚 때문…국고보조금 받아 대부분 변제”

중앙선관위에 25일 4·9 총선 후보 등록을 접수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재산이 마이너스 120억 5천134만원여서 전체 후보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해 대선 출마 당시 4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무려 16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

이는 지난 대선 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후 선거자금을 마련하느라 엄청난 빚을 떠안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총재 측 설명이다.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시점이 2007년 12월 31일이어서 이날 제출한 자료에는 이 총재가 대선자금 조달을 위해 빌렸던 금액만 드러나 있고 올해 들어 변제한 금액은 반영돼 있지 않아 엄청난 ‘빚쟁이’로 신고돼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가 이날 신고한 지난해 말 기준 재산현

황을 보면 채무는 사인 간 채무 74억 7천만원, 미지급금이 69억 8천만원 등 모두 148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사인 간 채무는 말 그대로 이 총재가 대선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고, 미지급금은 선거운동원 수당 등 선거운동 과정에 발생한 비용 중 제때 지급하지 못한 돈을 말한다.

하지만, 이 채무는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13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이후 상당 부분 변제해 현재 2